

생성형 AI부터 스타트업 지원... IT기업 신사업 쏟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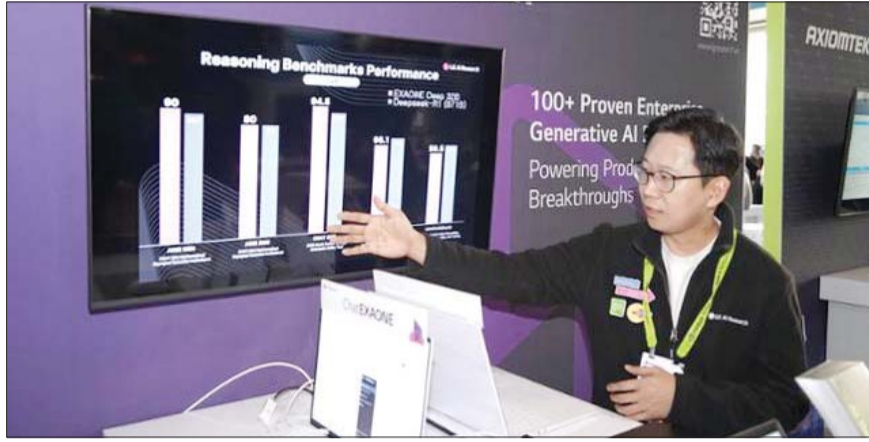
LG AI연구원 AI '역사원 답' 공개

AWS 코엑스서 '유니콘데이' 개최
국내 스타트업 성장 전략 등 홍보

앤스로픽 '코리아 빌더 서밋'

韓 지사 설립·스타트업 지원 발표

어도비 서밋서 AI 마케팅 솔루션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18일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 GTC가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의 전시장에서 추론형 인공지능 모델 '역사원 답'을 소개하고 있다. /LG

인공지능(AI) 열기가 식지 않고 더 타오르고 있다. 3월에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앤스로픽, 어도비, LG AI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AI 관련 신사업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 지원부터 생성형 AI 모델 경쟁, 마케팅 혁신까지 제시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LG AI연구원 "딥시크 R1의 5% 매개변수로 같은 성능"

LG AI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서 개막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GTC)에서 자사가 개발한 AI 모델 '역사원 답'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역사원 답'이 저비용·고효율 추론형 모델 딥시크 R1의 약 5%에 불과한 매개변수로 R1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기본 AI 모델인) 역사원 3.0에서 3.5를 내놓는데 4개월이 걸렸고, 이번 추론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4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통합 모델을 내놓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역사원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 '역사원 챗'은 LG그룹 내에서만 활용 중이다. 배 원장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와 소재 분야 해외 기업 10여 곳과도 협력 중이다.

◆AWS "韓 AI 스타트업 성장 도울 것"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AWS 유니콘데이'를 연 AWS는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자사 전략을 홍보했다. AI 스타트업과 B2B 서비스형 SaaS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AWS 이기혁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은 "AWS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비롯한 글로벌 이변

트 참여 및 기술 투자 기회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네트워크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대기업과 협업해 실질적인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AWS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주간 아마존 본사에서 멘토링을 제공하고 연례 컨퍼런스 'AWS 리인벤트'에서 쇼케이스 여는 '생성형 AI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WS는 스타트업의 미국·일본 글로벌 행사 참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앤스로픽 "韓 지사 열 계획... 한국어 기능도 발전 중"

오픈AI의 최대 라이벌 중 하나로 꼽히는 앤스로픽도 1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개발자 행사 '코리아 빌더 서밋'을 통해 한국 지사 설립 소식과 함께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앤스로픽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창립 멤버 8명이 2021년 설립한 기업으로,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했다.

케이트 얼 제슨 앤스로픽 매출 총괄 책임자는 "올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첫 해"라고 밝혔다. 이어 클로드의 한국어 기능 또한 계속 개선, 고도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도비 "마케팅 혁신, AI 에이전트로"

어도비는 19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어도비 서밋 2025'를 열고 마케팅을 위한 주요 AI 마케팅 솔루션들을 소개했다. 이번 어도비 서밋의 핵심 키워드는 'AI'와 '마케팅 혁신'이었다.

안줄 밤브리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은 "브랜드마다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마케팅은 전략적 의사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다양한 어도비 에이전트를 각각의 마케팅 톨과 긴밀히 통합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목표·계약 조건만 전달하면, AI가 적절한 고객 세분화부터 고객 경로 설계, 실험과정까지 한번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어도비에 따르면 여행업체가 '6개월 내 항공권 또는 호텔을 예약한 고객 중 렌터카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AI에게 물으면 모델 생성과 고객 페르소나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송파구에 위치한 Cloud X 통합기술지원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직원들이 모니터링 중이다. /SK브로드밴드

SKB-SBI저축은행 클라우드 엑스 공급 계약

SK브로드밴드는 SBI저축은행스마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솔루션 '클라우드 엑스(Cloud X)'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Cloud X는 SK브로드밴드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VDI 솔루션이다. 개별 PC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서버에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가상 PC 1500대 규모의 업무망 VDI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KT 엠모바일 eSIM 고객에도 'AI 자동개통' 적용

KT 엠모바일이 지난 19일부터 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 개통 고객까지 'AI 자동개통'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eSIM 개통 신청 고객도 대기할 필요가 없다.

KT엠모바일은 지난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AI 기반 자동개통 시스템을 선보이며 고객의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정보 검증, 개통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고객의 개통 대기시간을 대폭 감소 시켰다. /김서현 기자

엔비디아, 올해 하반기부터 '가속 양자 연구센터' 운영

AI 기반 로보틱스·자동화로 산업 혁신
기능 강화 위해 '블랙웰' 생산 돌입
매년 새로운 GPU·CPU 등 개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의 발전상을 제시한 엔비디아가 가속 양자 컴퓨팅 연구 센터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5'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NVAQC)'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NVAQC는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한 기술 제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엔비디아는 선도적인 양자 하드웨어와 AI 슈퍼컴퓨터를 통합해 가속 양자 슈퍼컴퓨팅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NVAQC는 큐비트 노이즈(양자 컴퓨터의 연산 오류) 문제부터 실험용 양자 프로세서를 실용적인 장치로 전환하는 것까지 양자 컴퓨팅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신약 개발부터 재료 개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I 슈퍼컴퓨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NVAQC는 다양한 양자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해 유용한 가속 양자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GTC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 CEO는 AI 기술이 변곡점에 섰다고 진단했다. 추론 AI와 에이전트 AI의 부상과 AI 컴퓨팅 수

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현재 로보틱스와 산업용 물리적 AI의 시장 규모는 50조달러(약 7경3020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황 CEO는 "AI 기반 로보틱스와 자동화가 제조, 물류, 의료 등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아이작과 코스모스 플랫폼이 발전을 주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작은 로봇 개발을 위한 AI 기반 시뮬레이션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제어, 동작 최적화를 지원한다. 코스모스 플랫폼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3D 환경을 생성하고, 이 환경에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엔비디아는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

기능 강화를 위한 AI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블랙웰' 생산에 들어갔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차세대 AI GPU(그래픽 처리 장치) 아키텍처로, 이전 세대인 호퍼보다 40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는 1년 주기로 AI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황 CEO는 "매년 새로운 GPU와 CPU(중앙 처리 장치), 가속 컴퓨팅의 신기능을 개발할 것"이라며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안된 베라 루빈 아키텍처(블랙웰의 후속)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ik1@

LG CNS, 美 AI 기업과 '에이전트 AI' 경쟁력 강화

W&B와 에이전트 AI 공동연구 개발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가 '에이전트 AI(인공지능)' 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LG CNS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업 W&B(Weights & Biases)와 에이전트 AI 운영 역량 강

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에이전트 AI 기술을 공유하고, 에이전트 AI 서비스 운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선다. 국내 에이전트 AI 시장 선점을 위한 신규 사업도 함께 발굴한다. W&B는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AI 기업으로, AI 모델을 만들거나 검증할 때 그 과정과 결과를 추적 관

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제공한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 대상 '에이전트 AI 통합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에이전트 AI와 거대 언어 모델(LLM) 성능 최적화, 품질 모니터링 등을 위해 W&B의 AI 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W&B의 AI 솔루션 '위브(Weave)'는 AI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하도록 LL



LG CNS CTO 박상엽(오른쪽)과 W&B CEO 루카스 비왈드와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M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솔루션이다.

/김현정 기자

과기부는 올 6월까지 3G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종료 의사를 내면 남은 이용 자 보호 대책 마련에 들어가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이 유지 입장을 내놓으면 과기부는 12월 주파수 재할당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